

## 90년 동안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가정의 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90**년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1838~1918년)과 보좌들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로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후기 성도 가정에서 하나의 관례가 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면에서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

### 아름다운 월요일 저녁의 모형

파나마 산 미겔리토 스테이크 로마 누에베 와드의 마리아 페르난다 페르난데스는 일곱 살로 가정의 밤에서 사회를 맡았다. 마리아 페르난다(친구들과 가족들은 마리아를 마리페르라 부른다)는 기도를 주제로 택했다.

노래를 지휘하고, 두 살 된 남동생 로베르토에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하도록 부탁한 후 마리페르는 가정의 밤 자료집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예전에 복음 그림 패킷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여 오래 기억하도록 도와 주었던 이야기였다. 그런 후 마리페르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학년 초에 항상 나와 다투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싸우고 난 후에 저는 울면서 욕실로 가서 더 이상 친구와 싸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그들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마리페르는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리아호나를 두 권 주었죠. 제 친구는 무척 좋아하며 더 달라고 부탁을 했죠.” 마리페르는 그 친구와 교회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마리페르는 이런 간증으로 끝맺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물문경과 성경이 참되며, 지상에 사시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인 마리솔, 그리고 로마 누에베 와드의 감독

사진 촬영: 아담 시 올슨



가정의 밤 동안 지휘를 하는 마리페르 페르난데스.



가족들이 [www.lds.org/hf](http://www.lds.org/hf)에서 가정의 밤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찾을 수 있다.

## 가정의 밤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참고 자료

가족들이 보다 뜻 깊은 가정의 밤을 계획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최근에 가족들에게 공과, 활동, 게임, 대화 주제와 관련된 수 백가지의 제언을 제공하는 링크를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교회의 가정 및 가족 웹사이트 ([www.lds.org/hf](http://www.lds.org/hf))에 열거된 제언들은 가정의 밤 자료집, 교회 잡지, 다양한 다른 출처에서 뽑아 온 것들이다. 지난 2년 동안 웹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료를 찾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왔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가정의 밤이 제정된 이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1999년 2월 1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이 갖는 책임의 중요성에 관해 회원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

으로서, 그 어떠한 곳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되시는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이런 활동을 장려하려고 구축된 웹사이트에는 여러 다른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 인상적인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담겨 있다. 웹사이트에는 십대 청소년들을 가정의 밤에 참여시키고, 어린 자녀들의 관심을 끌고 공과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웹사이트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언어의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

이며 아버지인 루이스가 기도에 관한 간증을 나누었다. 그런 다음 페르난데스 감독이 폐회 기도를 한 후에 다과가 있었다.

## 가정의 밤이 주는 축복

가정의 밤이 제정되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때때로 가정의 밤이 힘들기는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은 가정의 밤을 항상 가졌고 그분들의 부지런함으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가족과 손자녀들의 가족과 증손자녀들의 가족 안에서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가족 결속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가정의 밤은 이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져다줍니다.”(“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8쪽)

가정의 밤을 갖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들이 오직 자녀가 있는 부부들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가정의 밤을 갖는 가정에는 어느 가정이든 사랑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단합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밤을 정규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자녀와 함께 살거나 살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가정의 밤은 우리의 가정에서 단합과 사랑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3쪽)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보다 알차게 갖도

록 하기 위해 교회는 가족이 마음을 고양시키는 훌륭한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밤 자료집(물품 번호 31106)과 함께 복음 그림 패킷(물품 번호 34730)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정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조언과 제안을 제공하는 온라인 참고 자료도 구할 수 있다.(상자 기사 참조)

가정의 밤을 함께 계획하도록 가족에게 권고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밤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각 사람은 나름대로 이 모임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 월요일 밤마다 함께 모임

월요일이 다시 찾아왔고, 도미니카 공화

국 산토도밍고 스테이크 가스쿠에 와드의 베라스 가족은 선지자에게 귀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여덟 살 된 산탈레가 노래를 지휘했다. 어머니 아일다가 네 살 된 예탈리의 도움을 받아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두 살 된 알리아는 아버지 넬슨이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대해 간증을 할 때 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베라스 형제가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부를 때, 세 딸의 폭소를 자아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다과가 있었다.

가정의 밤은 산토도밍고 시내에 있는 베라스 가족의 비좁은 아파트를 분주한 거리 위의 5층에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로 바꾸어 놓았다. 산탈레는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

교회 잡지 소속의 채드 페레스가 기사 기고

## 봉사를 시작한 신임 선교부 회장

**전** 세계 선교부의 삼분의 일 이상이 올해 새로운 선교부 회장을 맞이하게 된다. 122명의 신임 선교부 회장이 7월 1일 또는 그 전후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계에 있는 선교부 수는 339개이며, 가장 최근의 선교부는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로 2005년 1월 1일에 조직되었다.

#### 선교부-신임 선교부 회장

한국 부산-송평종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북-토마스 알 콜맨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남-로널드 알

베니온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중앙-우고 이

마르티네스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케사르 에이

모랄레스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에드가 엘 스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제임스 에이 보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존 시 넬슨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존 제이 워즈워스

뉴저지 모리스타운-스티븐 케이 파킨슨

뉴질랜드 오클랜드-칼 비 쿡

뉴질랜드 웰링턴-지 마이클 피니건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서-래리 케이

베어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동-후안 에이

가르시아

독일 뮌헨/오스트리아-홀게르 디 라코프

독일 프랑크푸르트-케이 유진 웹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그레고리 에이

쉬버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존 에이치 애쉬비

루이지애나 배턴루지-더글러스 에이치

패터슨

멕시코 과달라하라-게리 엘 히튼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리카르도 이

카스틸로

멕시코 베라크루스-레스터 에프 존슨

멕시코 오악사카-헤수스 에이 오리티스

멕시코 토레온-리처드 제이 호건

멕시코 투스틀라구티에레스-클리포드 엘

웨튼

멕시코 티후아나-브라이언 비 카믹

멕시코 푸에블라-제이 필 프리스톤

모잠비크 마푸토-린 피 윌리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알 로이드 스미스

미시간 랜싱-딘 시 에드워즈

미주리 인디펜덴스-제임스 엘 해킹

발트-러셀 엔 워터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다닐로 에이 파레데스

볼리비아 코차밤바-로널드 이 델린

브라질 레시페-마크 비 우드럽

브라질 리베이라프레투-알 블레어 콘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북-주앙 엘 오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밀턴 에이치 브리튼

브라질 마나우스-파울로 에이치 이티노세

브라질 마세이오-비 브르스 무이르

브라질 브라질리아-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브라질 살바도르-자르바스 에프 소우사

브라질 상파울루 북-마이클 제이 버타소

브라질 상파울루 남-조세 에이 테이세이라

브라질 상파울루 인테르라고스-데일 에이치

브래포드

브라질 포르탈레자-빅토르 에이 다실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라몬테 제이

단지에 이세

사모아 아피아-볼 비 프라이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케네스 이

브라이일스포드

스웨덴 스톡홀름-잔 아케 칼슨

아르헨티나 레시스텐시아-도널드 브이  
세익스피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리차드 시 허치슨  
아르헨티나 멘도사-후안 시 아빌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알폰소  
라모스  
아르헨티나 살타-이스라엘 루발카바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린제이 티 딜  
아칸소 리틀록-게리 앤 배철러  
알래스카 앵커리지-랜디 시 루이스  
알바니아 티라나-폴 디 클레이튼  
애리조나 투손-더글러스 에프 혁햄  
애리조나 피닉스-시 스코트 질  
에콰도르 과야킬 북-랜들 엘 리드  
에콰도르 키토-호세 에프 라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서-로버트 디 콜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동-리키 디 존스  
영국 맨체스터-디어도어 엠 제이콥슨  
오리건 유진-다니엘 비 푸겔  
오리건 포틀랜드-벤 시 지슬  
오하이오 콜럼버스-러셀 에스 질리랜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스코트 디 파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데일 이 앤더슨  
우크라이나 키예프-알 킴 데이비스  
워싱턴 터코마-케빈 더블류 피어슨  
웨스트버지니아 찰스턴-조셉 에프 카울리  
이세  
이탈리아 카타니아-더블류 브라이언 콜튼  
일본 동경 사우스-발튼 제이 터커  
일본 삿포로-요시카즈 요코야마  
일본 센다이-야사오 미야시타  
일본 히로시마-아키라 야부소  
조지아 메이컨-알 브렌트 이반슨  
칠레 산티아고 북-케비 알 던컨  
칠레 오소르노-칼 알 포크너  
캐나다 몬트리올-엘레인 에이 페티온  
캐나다 밴쿠버-앤소니 더블류 미들턴 이세  
캐나다 토론토 동-테드 알 캘리스터

캘리포니아 로즈빌-리 티 페리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로버트 에이 이워  
캘리포니아 벤투라-리차드 엠 엘즈워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오스카 더블류 맥콩키  
삼세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알 랜들 허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버트 앤 패커  
캘리포니아 아카디아-스티븐 더블류 오웬  
캘리포니아 애너하임-랜들 지 함슨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존 시 벅  
켄터키 루이스빌-데니스 시 브림홀  
코네티컷 하트퍼드-벤 알 존슨  
콜로라도 덴버 북-더블류 디어 몬테규 이세  
콜로라도 콜로라도스프링스-로버트 에스  
폰테리감  
콜롬비아 칼리-오라시오 제이 니에토  
콩고 민주 공화국 킌사사-윌리엄 더블류  
메이콧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더글러스 엘 웨이트  
타히티 파페에테-티 마라마 타라티  
테네시 내슈빌-마크 오 로즈  
테네시 녹스빌-로널드 에스 고드프리

텍사스 댈러스-바트 시 워너  
텍사스 러벅-디 브렌트 로즈  
텍사스 휴스턴 이스트-마이클 에스 레이크  
텍사스 휴스턴-트래비스 엘 슈투어드  
페루 리마 이스트-마이클 알 린스트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제이 케이 프랜시스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제럴드 엠 젠슨  
프랑스 툴루즈-제이 크레이그 메릴  
프랑스 파리-스티븐 에이치 폰드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노엘 비 레이놀즈  
피지 수바-이안 에스 아든  
핀란드 헬싱키-필립 에스테스  
필리핀 다바오-모이스 엠 마번가 이세  
필리핀 마닐라-데이비드 이 레슈어  
필리핀 산파블로-제럴드 이 모티머  
필리핀 세부-레오나드 엠 앤더슨  
필리핀 안젤리스-로버트 제이 스트링햄  
필리핀 올롱가포-크레이그 에이 버튼샤  
필리핀 타클로반-리차드 제이 트래스크 ■  
\*선교부가 조직된 2005년 1월 1일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다.

## 부부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현** 재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임 선교사  
로 봉사하고 있으나 교회에서는 비교  
적 연세가 많은 그룹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봉사하는 노년  
의 부부 선교사들이 2,100쌍 이상 있지만  
더 많은 수가 필요하고 그럴 기회도 많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젊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선교 임지에서 부부 선교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부 선  
교사들이 선교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  
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

건강하고 활력을 지닌 채 은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님의 사업에서 엄청난  
필요성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There Must Be Messengers”,  
*Ensign*, 1987년 10월호, 4쪽)

200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  
트 디 헤일즈 장로는 네 가지, 즉 두려움,  
가족 걱정, 재정, 적절한 선교 사업 기회를  
찾는 것 등이 부부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가  
로막는다고 말했다.(“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8~31  
쪽 참조)

##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경전 지식이나 언어 능력이 없다는 점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걱정한다.

헤일즈 장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부부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값진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있는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대체로 전도를 하지 않으며, 젊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과 똑같은 엄격한 일정을 소화할 필요도 없다. 많은 토론을 가르칠 수도 있으나 그런 기회는 반드시 가두 전도를 통해서 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접촉을 통해 자주 온다.

## 가족 걱정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연로한 부부들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조부모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수천 번의 설교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기도 드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적힌 그들의 간증과 선교 지역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공헌에 대해 읽을 때, 가족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사의 가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했다. 1830년 토머스 비 마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 그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교리와 성약 31편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네 가족, 참으



부부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2,100쌍 이상의 부부 선교사들이 현재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

로, 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리니, ...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는 네 선교사업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라. ... 그런즉 네 가족이 살리라. ... 잠시 동안만 그들에게서 떠나 나의 말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리라.”(교리와 성약 31:2~3, 5~6)

## 재정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한 부부는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부부는 매달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재정적인 희생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헤일즈 장로는 봉사함으로써 받는 축복을 재정적인 희생에 비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봉사하는 축복은 참으로 값진 것이며 그것은 경험한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사부는 부부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지원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적절한 기회를 찾음

부부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교회 교육 기구, 공보, 가족 역사, 선교부 사무실, 성전, 인도주의적 봉사, 그리고 많은 다른 곳에 봉사 기회가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라도 거의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헤일즈 장로는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선교부 지명을 하고 주님의 필요사항과 지원자의 자격 사이에서 최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

을 기울인다. 지원자들의 희망 사항이 우선 고려되지만 사도들은 회원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꺼이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부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자신들의 소망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함께 상의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선교 사업 기간, 선교 사업 기회, 부름을 받는 과정, 재정, 기타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회원들은 [www.lds.org/csm](http://www.lds.org/csm)을 방문하고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

## 넬슨 자매 장례식

2월 18일 솔트레이크 보넬빌 스테이크 센터에서 있었던 장례식에서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부인인 덴젤 넬슨 자매에 대해 회고하며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여성이라 말했다.

넬슨 장로는 아내가 2월 12일에 향년 78세로 솔트레이크시티의 자택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있었다.

넬슨 자매는 1926년 2월 17일에 유타주 페리에 있는 화이트 가족 농장에서 덴젤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고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호손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언어 발화를 가르쳤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한 덕분에 장래의 남편

편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헤이푸트, 스트로푸트(Hayfoot, Strawfoot)라는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만났던 것이다. 3년 동안 데이트 한 뒤 1945년 8월 31일에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넬슨 자매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처음의 9자녀는 딸이었다. 그녀는 54명의 손자녀와 14명의 증손자녀를 갖는 기쁨도 맛보았다.

넬슨 자매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넬슨 자매는 20년 동안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원으로 봉사했다.

넬슨 자매는 가족을 사랑했으며,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의사 소통의 확고한 가교로서



덴젤 넬슨 자매

가족 행사를 전하는 월간 출판물인 넬슨 뉴스를 만들어 20년 이상 동안 배부했다. ■

##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깨끗한 물 프로그램

채드 페레스, 교회 잡지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는 전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질병, 불편, 위험을 퇴치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깨끗한 물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미 지구촌 곳곳의 31개국에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

2003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깨끗한 수원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는 식수를 공급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빗물 저수 장치를 설치하고, 기존의 지상수를 정화하고, 자연 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모으는 한편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구멍을 뚫고, 우물을 정화하는 것이다.

교회 인도주의적 봉사부는 또한 필요한 곳에 깨끗한 물 저수 탱크를 공급해 왔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는 최근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물탱크를 설치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또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정부 지도자들 및 시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다.

한 지역에서 깨끗한 물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교회는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고 또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의 지도자들 및 시민들과 만나 협의 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교회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대

체로 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회장단의 승인이 있는 후에 교회 봉사 선교사들이 단기 전문가로 봉사하며 지역의 인도주의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여 프로젝트를 원만히 진행시켜 나간다.

일곱 쌍의 부부가 현재 깨끗한 물 프로그램에서 단기 전문가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의 의무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시하는 일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로 여행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지역 정부와 함께 일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일 이외에도 교회는 모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기념 행사를 갖고 있다. 특별히 정부 및 교회 지도자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며, 행사 동안에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종종 민속 노래를 부르거나 무용을 공연한다.

프로젝트는 전세계 곳곳에서 수행해 왔다. 많은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아시아, 유럽, 태평양, 남미의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왔다.

교회 인도주의적 봉사를 위해 기부된 기금의 일부가 깨끗한 물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강조한다.

셋째, 접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전 의식 참여를 격려한다.

성전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거나 방문하고 싶은 성전의 일정을 단순히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웹사이트가 유용할 것이다.

방문자들이 성전에 관해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각 성전의 간단한 배경을 읽고, 완공된 성전의 사진을 보고,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의 사진을 봄으로써 성전 건축의 진척 상황을 살펴볼 기회도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성전 헌납 일자와 함께 완공된 모든 성전을 헌납 순서대로 볼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세계 지도에서 일정 지역을 클릭하여 어떤 성전이 발표되었거나 완공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웹사이트는 영어 이외에도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된다. 보다 많은 언어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재 없지만 그런 결정은 특정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웹사이트에서의 주요 변경이나 추가사항에 대해 발표된 계획은 없지만,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거나 입수되면 업데이트 된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또한 피드백(feedback) 링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이 웹사이트는 또한 성전에 관해 질문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 난에는 성전의 기능, 성전 내부 모습, 성전과 집회소 사이의 차이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

## 성전 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지난 10 년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성전 건축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과학 기술도 빠르게 성장했다. 성전수의 확대 및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교회는 교회 웹사이트에 성전 전용 화면을 만들어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www.lds.org/temples](http://www.lds.org/temples)을 방문하거나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Temples”를 클릭하면 다른 것 중에서도 성전의 중요성을 설

명하고, 각 성전의 일정을 보여주며, 위치와 안내 사항을 알려주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Temples” 링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보다 잘 이루기 위해 2002년 초에 만들어졌다.

첫째, 웹사이트를 통해 교회 회원들이 공식적인 성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웹사이트는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삶 속에서도 성전의 중요성을

## 2005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 아호나 2005년 7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친구들란 4쪽과 5쪽에 있는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를 참조한다.

1. 약속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어린이들에게 묻는다.(답: 여러분이 하겠다고 말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집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하게 한다.(예를 들어, 장난감 정리, 좋은 말 사용하기) 그런 다음 그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몇 가지 방법을 말하게 한다.(약속, 이름을 쓰는 것 등등)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 곧 성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답례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초등회 그림 패킷에서 다음 그림들을 찾아 칠판에 붙인다. 1-11(침례 받는 어린이-소년)과 1-3(예수 그리스도-구세주).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를 오려서 각 그림에 쓸 종이 액자를 만든다. 각 종이 액자를 여섯 조각의 퍼즐로 자른다.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참조 성구 가운데 성구 하나와 각 종이 액자의 퍼즐을 두 개씩 준다. 모사이아서 18:8~10; 모로나에서 6:1~4; 교리와 성약 20:37. 각 그룹에게 참조 성구를 찾아서 읽으라고 한다. 파란 퍼즐 조각 뒷면에 참조 성구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맺는 약속들을 적는다. 빨간 조각의 뒷면에는 참조 성구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적는다. 각 그룹의 어린이

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1-11(침례 받는 어린이-소년) 그림 주위로 파란 종이 액자를 맞추게 한다. 한번에 하나씩 퍼즐을 뒤집고 우리가 주님과 맺는 약속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그 약속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순중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주위로 빨간 종이 액자를 맞추게 한다. 각 퍼즐을 뒤집어 주님께서 우리들과 맺는 약속들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나의 복음 표준(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뒤 표지 참조)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침례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의 복음 표준 다섯 내지 여섯 개를 골라 각각의 종이에 하나씩 적는다. 골라 뽑은 각각의 표준을 설명하는 그림을 복음 그림 패킷이나 초등회 그림 패킷에서 선택한다. 그림과 나의 복음 표준 종이를 정면이 바닥을 향하게 놓거나, 정면이 칠판을 향하게 테이블로 붙인다. 한번에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여 두 장씩 뒤집게 한다. 표준과 그림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그 그림과 복음 표준이 적힌 종이를 치운다. 일치하는 그림을 집은 사람은 그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어린이가 그 복음 표준을 가르쳐주는 노래나 찬송가를 택할 어린이를 지명할 수 있다. 모든 표준이 그림과 맞을 때까지 활동을 반복한다.

3. 노래 발표: 어린이들이 멜로디에 친숙하도록 도와주면서 “나 침례받고 나면”(어린이

노래책, 53쪽; 성도의 빛, 1994년 6월호, 친12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위해 그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칠판에 선율을 그리는 것을 쳐다보게 한다. 노래의 멜로디가 마치 무지개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다. 일절을 노래하면서 무지개 선을 두 개 그린다. 노래를 다시 부르고, 어린이들에게 일어서서 콧노래로 노래를 따라 하며 허공에다 무지개를 그려 보게 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후렴에 있는 높고 낮은 음을 노래할 때 어린이들이 눈을 감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한다. 어린이들이 후렴을 콧노래로 따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귀기울여 듣게 하고 노래에 담긴 메시지에 관해 질문을 함으로써 메시지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무엇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나요?” 또는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다. 노래하기 전에 질문을 한다. 그 다음 노래를 하고 대답을 기다렸다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게 한다. 계속 반복한다. 물 또는 깨끗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낱말을 노래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일어서게 한다. 구세주와 속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간증한다. ■



## 한국 지역의 교회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

북아시아 지역 회장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 한국 지역의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과 비전과 생각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은 한국 성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기쁨과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게 될 것입니다.

**3. 사랑의 상징인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수행합시다.** 신권 지도자들은 영원한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 “사랑을 전하는 사업”에 진실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개미가 설탕에 몰려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성도로서 함께 모이고자 할 것입니다. 통계 수치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하지는 맙시다.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수행하도록 합시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대상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자비, 축복”을 느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성전에 가서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읍시다.

**4. 성전 사업과 조상들을 향한 사랑.**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는 조상들의 구원과 승영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분들이 가족 구성원에 인봉되도록 하는 성전 사업은 우리가 선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작은 구세주”로서 봉사하고 조상들을 위해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행한다면 머지 않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인봉”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상들은 “주님의 속죄”를 느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정결케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는 조상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 더 많은 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땅 곳곳에 주님의 집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 사랑으로 가득 찬, 경건하며 엄숙한 성찬식을 준비합시다.** 주님을 매주 기억하는 성찬식이 우리가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성령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성스러운 주님의 속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위안을 받고, 치유 받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찬식을 갖는다면, 교회의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면, 어떠한 자도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만일 너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지이다.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교리와 성약 50:28~29)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다섯 가지 원리들을 적용하고 회원들도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1. 영원한 가족 관계를 형성합시다.** 물몬경에서 엘마 일세는 선지자 아빈아다이의 간증을 듣고 개종하게 됩니다. 엘마 일세의 개종 후, 엘마 이세, 엘마 이세의 아들 힐라맨, 힐라맨의 아들 힐라맨,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 그리고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6세 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에 힘 입에 모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의 아들이신 리처드 지 힝클리 장로님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저는 리처드 지 힝클리 장로님의 손자, 즉 힝클리 회장의 증손자를 알고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알고 계시며, 캐나다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받아들여졌던 고조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처럼, 우리도 가족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쌓아서 여러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2.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더 많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속죄”와 회복된 “복음 교리와 성스러운 의식들”을 통해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 사업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복음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일부만 회원인 가족의 아버지들이 개종해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봅시다. 교회 회원의 자녀 중 침례받지 않은 아이들이 침례받도록 도와줍시다. 저활동 회원들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많은 부부 선교사들(전임 선교사나 주당 32시간 봉사하는 선교사)도 재활동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합니다. 2세대나 3세대에 해당하는 회원들도 선교 사업을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영, 기쁨, 희망”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오

## 몰몬경 합본 한글 개역판 출판에 따른 교회 본부 안내문

**몰**몬경 합본 한글 개역판(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지시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개역판의 출판 발표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개역판 경전을 구입하여, 정구적으로 갖는 개인 및 가족 학습, 그리고 교회 모임과 임무 지명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배우고 가르치면 간증이 자라고 지식이 증대되며, 가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이 커지며, 유혹을 견디고 진리와 의를 지킬 수 있는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개역판의 구성

이 몰몬경 합본 개역판에는 경전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새롭고 효과적인 학습 보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 각 장 및 편 개요

<p><b>제 7 장</b></p> <p>시렐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야곱과 다투고 표적을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함—모든 선지자는 다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대하여 말하였음—니파이인들은 환난 중에 태어나 레이맨인들의 미움을 받으며 방황하는 자로서 그들의 날을 살아 나갔음. 주전 544~421년경.</p> <p>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수년이 지나 후, 이튿이 시렐이라 하는 사</p>	<p>그는 나를 게 하려는 내가 진실은 나에게 러나 또한 씬으로 내 들었으나 수 없었는 6 이에 게 와서, 르되, 형저 말하고자 는 내가 들</p>
--	--

개역판에 있는 몰몬경과 값진 진주의 개요는 각 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각 편에는 각기 다른 두 개의 개요

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편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며 다른 하나는 그 편역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 경전 안내서

이 개역판의 구성에서 가장 유용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전의 뒷부분에 위치한 경전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주제별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각 주제 항목은 상세한 정의나 설명과 함께, 보통 모든 4대 표준 경전에 나오는 주요 참조 성구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된 교차 참고 성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救援, SALVATION), 계획(計劃, PLAN OF).** 구속의 계획 참조

**구원(救援, SALVATION), 아이들의(OF CHILDREN).** 아이, 아이들; 구원—아이들의 구원 참조

**구원(救援, SALVATION), 죽은 자(者)를 위한(FOR THE DEAD).** 또한 계보; 구속의 계획; 구원; 기억의 책 참조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교회의 살아있는 합당한 회원에 의해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들을 대행하여 받을 기회. 죽은 자들에게는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가르쳐지며, 또 그들은 필멸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되는 의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조상을 위해 구원 의식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니라, **벤전** 3:18- 죽은 자들에게도 복니, **벤전** 4:6. 아들<sup>c</sup>을 방문하셨음, **교**나면 저 옥에서 그들의 구속이 이루 88:99. 나의 성도들 위하여 침례받을 수 땅 위에는 없음이니 은 자로서 복음을 은 모두 다 해의 왕리라, **교성** 137:7~1 이 나타나 충실하였에게 자유를 선언 138:18. 옥에 있던 와, **모세** 7:57.

**구원(救援)의 계획( SALVATION).**

**구원자(救援者, DE**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나다 순 목록은 새로운 몰몬경 합본 개역판에 있는 몰몬경과 마찬가지로 몰몬경 개역판 단행본에도 들어 있습니다.

안내서에 있는 도표들은 독자들이 각 경전의 상호 관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표” 항목은 서로 다른 경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연결해 주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지명 색인이 들어있는 지도, 그리고 경전 사적지에 대한 사진 및 설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주

각주에는 다른 경전 구절 및 경전 안내서를 교차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주 표시는 작은

### 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 | 전부니라.

<p>40- 인내 세상.                  □ 출 34:6-7;                  사 53:5;                  요 12:2;                  모사 14:5; 15:12;                  교성 19:16-19.</p>	<p>42- 열 12:16;                  43- 니후 9:13;                  열 40:23.                  □ 인내 죄책감.                  □ 니후 9:14;                  모사 3:25;                  열 5:18.</p>
<p>41- 열 12:18;                  교성 88:33.                  □ 계 20:12-13;                  열 42:23.                  □ 인내 심판, 마지막.</p>	<p>44- 열 41:12-15.                  □ 3니 11:27, 36.                  인내 하나님, 신회.                  □ 인내 하나님,</p>

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각주는 작은 첨자 ㄱ, ㄴ, ㄷ 등으로 표기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문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ㄱ, ㄴ, ㄷ 순서는 각주가 있는 각 절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번역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짐**

주님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하여금 경전을 관리하도록 지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처음 영문판 경전에 소개된 교리들이 모든 번역 판에서 정확히 보전되도록 하는 정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정책에는 번역이 원 저자가 쓴 단어, 어구, 문장, 관용 표현 및 문체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고대의 기록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낯선 단어와 어구를 고수했기 때문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지자의 원래 작업에 대한 번역도 그와 같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번역은 원래의 언어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몰몬경 합본 가운데에는 일부 단어 표현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몬경 영문판에도 영어가 모국어인 독자들에게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의 이런 형태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의 저자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 선조들이 보존한 기록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의 번역은 원문에 매우 충실하여 원 저자의 단어, 어구, 그리고 문체를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모든 비영문판들도 영문판의 직역체를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번역 및 출판의 전 과정은 주님의 영감과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의 지시 하에 교회 교리에 밝은 합당한 회원들이 부름 받아 번역을 최종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자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곳에 살며 한국어에 능숙한 원어민들이었습니다. ■

**새로운 개역판 활용의 중요성**

1981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하에 영문판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 합본에 새로운 소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장 및 편이 새롭게 쓰여졌고, 새로운 각주가 추가되었으며, 색인 또한 새롭게 편집되었습니다. 이 몰몬경 합본 한글 개역판은 이 1981년 영문판에 기초한 것입니다.

1981년 영문판 경전이 완성된 후,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198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경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실한 그리스도 세대를 계속 양성해 낼 것

입니다.

“더 이전 세대는 그것이 없이 자랐지만, 또 다른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도 주어지지 않았던 계시들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몰몬경 합본 한글 개역판의 영감 어린 번역과 학습 보조 자료들은 모든 독자들이 주님을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개역판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회원들은 자신의 경전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으로서 매일 연구해야 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원한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8년 8월 호, 16쪽) ■

**한글 교회 이름 변경에 대한 안내**

우리 교회의 영문 이름은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을 믿고 있으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인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는 성도들의 교회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이름이 한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표기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미지보다 “말일성도 교회”라는 이미지가 더 쉽고 강하게 떠올라 우리 교회가 혹시 사 이비 종말론자들과 같은 부류의 종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임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이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권능과 권세와 열쇠를 주시어 세우셨던 초기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 선지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새로 바뀐 교회 로고

자 조셉 스미스에게 권능과 권세와 열쇠를 주시어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은 조직과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초기 성도들의 교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기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이름과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임 선교사와 성도들이 교회 이름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교회 이름을 새로운 우리 한글 이름과 같이 부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대중 매체나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명칭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부르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부득이 교회 명칭을 줄여서 부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부르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주요 용어 개정에 대한 안내

### ■ “요셉 스미스”를 “조셉 스미스”로 변경

우리 교회의 초대 선지자였던 요셉 스미스의 영어 이름은 “Joseph Smith Jr.”입니다. 선지자가 살았던 1800년대 미국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를 “조셉”이라고 불렀고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다른 “Joseph”도 “조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그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12편 서문에 함께

나란히 나오는 “Joseph Smith”와 “Joseph Knight” 두 사람은 이름이 똑같이 “Joseph”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은 “요셉”으로, 다른 한 사람은 “조셉”으로 달리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된 이유는 구약의 요셉(Joseph) 및 리하이의 아들 요셉(Joseph)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질 선지자 요셉(Joseph)이 마지막 날에 세워지리라는 몰몬경 니파이 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나타

내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름에 관한 번역 지침에 따르면 몰몬경에 나오는 성경 이름은 성경에 맞추어 번역되되, 근대 이름에 해당되는 교리와 성약의 이름은 ‘근대 이름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몰몬경과 성경에 나오는 ‘Joseph’은 “요셉”이지만 조셉 스미스가 살았던 1800년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조셉”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발음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를 “요셉”이 아니라 “조셉”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 “예언자”를 “선지자”로 변경

경전에 나오는 “Prophet”이라는 영어 표기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자”라고 표기하여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경이나 몰몬경이나 모두 “예언자”라고 표기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prophet”을 성경과 달리 “예언자”라고 표기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다른 성격의 “예언자”가 몰몬경 시대나 현대에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용어 역시 성경과 같이 “선지자”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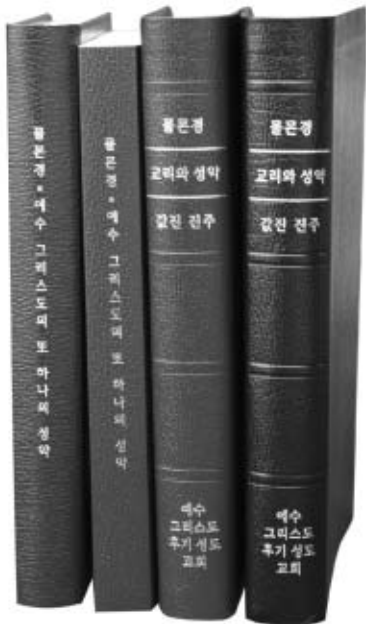
이로써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몰몬경 시대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지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데 더욱 분명하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 ■ “대관장단”을 “제일회장단”으로 변경

영어로 “The First Presidency”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동안 한글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대관장단”이라는 용어로 번역해 사용해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막연한 표현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The First Presidency”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회장단(Presidency)” 중 가장 첫째 되는 “회장단”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모든 권능과 권세 및 열쇠를 가지고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이 “제일 회장단”으로부터 그 밑에 있는 많은 교회의 조직이 “권능과 권세 및 열쇠”를 위임 받아 또 다른 “회장단”을 구성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의 총관리 역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회장단(Presidency)”은 “감리하는 평의회(Presiding Council)”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장 한 사람만이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두 사람은 이를 단지 보좌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감리 역



새로 출판된 경전들

원이 하나의 평의회를 이루면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열쇠는 회장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차도 세 분이 신회를 구성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관장단의 보좌를 부대관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영어 호칭은 세 분 모두 “President”인데, 두 분을 “부대관장”으로 부르는 것은 일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는 제일회장단의 세 분의 호칭을 모두 “회장”으로 통일하여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회장단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당분간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변경된 취지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조직의 “회장단”을 해당 조직의 이름 뒤에 “회장단”을 붙여 호칭함**

위의 제일회장단의 호칭의 원리에 따라 교회 조직의 다른 회장단도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이크장단 → 스테이크 회장단  
 성전장단 → 성전 회장단  
 선교부장단 → 선교부 회장단  
 지방부장단 → 지방부 회장단  
 지부장단 → 지부 회장단

(단, 감독단은 그대로 현재의 호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에 있는 사람들의 호칭은 제일회장단의 호칭의 원리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독단과 지부 회장단의 보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타 교회 조직은 이미 이 원리(장로정원회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단 등)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호칭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단에 있는 사람들의 호칭도 현재와 같이 “형제” 또는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 기타 변경 사항**

경전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했던 “성찬 축복문”과 “신앙개조” 등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찬 축복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인쇄된 축복문을 보내드리기 전까지

는, 우선 새로운 경전을 활용하여 성찬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진행 사항**

새로이 경전이 번역되었고, 교회 이름과 주요 용어들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책자와 자료, 교회 시설에 부착된 교회 로고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 작업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향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 찬송가: 2006년에 개역판 발간
- 교재: 2006년부터 새 교재가 출판될 때 마다 변경 사항 적용
- 교회 건물 로고 변경: 금년부터 시작하여 향후 3년 내에 완료 예정

이러한 계획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물문경 합본 한글 개역판 특별 보급 캠페인**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일회장단의 힝클리 회장께서는 모든 회원들이 정확히 번역된 경전을 읽도록 강조하셨습니다. 회원들이 새로이 개역된 경전을 조속히 구입하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경전 특별 보급 캠페인을 발표합니다.

현재 물문경 합본의 가격은, 오래 전에 8,000원으로 책정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간되는 개역판은 기존 경전과는 달리 경전 본문 외에 경전 안내서, 지도, 사진, 새롭게 적용된 각주 등 여러 내용이 풍부하게 보강되었고 책의 분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관리 본부 출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제작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역판의 정가를 현행 8,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이 개역판을 조속히 구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2005년 말까지 구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권당 5,000원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 보급 캠페인을 놓치지 마시고 많은 회원들이 조속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물문경 합본 발행**

연령이 높은 회원들이 늘어나고,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 경전 읽기를 하는 데 글씨가 큰 경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역판은 종전의 경전에 비해 글자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경전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하여 대형 물문경 합본을 함께 출판했습니다. 시력이 약하신 회원이나 연로한 회원, 그리고 가족 경전 읽기 용으로 가정에 비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 경전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

# 물몬경 합본 번역 과정의 뒷 이야기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

이제 이 아름다운 물몬경 합본(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 한글 개역판 경전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경전이 나오기까지 번역 팀, 검토 팀, 신권 지도자 검토 팀 그리고 교정과 수정에 동참해 주셨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경전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헌신적으로 봉사 해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이며 주님의 인도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와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물몬경 합본 번역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모두 교회 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검토에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명단은 적지 않으려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 헌신, 봉사, 인내, 순종, 고결한 성품 등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찬사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뒷이야기를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적어 두고자 합니다.

물몬경을 다시 번역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물몬경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몬경은 우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감을 주는 경전이었습니다. 다만 영어 경전에는 있는데, 한국어 경전에는 없는 부분(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역 성경, 사적지 지도 등)이 있고 그동안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경전 용어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경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교회 본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



회가 성경을 포함한 표준 경전 번역 지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시작하였으나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번역의 과정은 대강 이러하였습니다. 각 번역자들이 번역하면 내용 검토자, 언어 검토자의 검토를 거친 후 신권 지도자 검토 팀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전 전체를 검토하는 팀을 구성하여 다시 검토 수정한 후 교회 회원들에게 한번 읽어보게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다시 수정하여 우리나라 국어 전문가가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번역을 새로 시작할 때 교회 본부에서는 영어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할 것과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과 맥이 통하게 할 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번역 지침을 주었습니다. 번역자는 이 원칙을 너무도 충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번역자는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조로 하였던 성경은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관주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1930년대에 개정된 것으로 지금의 한글세대에게는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 검토, 신권 지도자 검토 팀의 검토를 거친 물몬경을 회원들을 선별하여 한번 읽어보게 한 결과, 새로 번역된 물몬경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부의 승인을 얻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으로 개역개정판 성경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물몬경 번역에 참고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번역,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팀, 검토 팀, 신권 지도자 검토 팀들이 토론하고 합의하여 용어의 번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안내의 과정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끊임없이 토의하고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용어만이 아닙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대한 검토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번역 팀, 검토 팀, 신권 지도자 검토 팀 모두 자신의 의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어와 문장은 원만하게 합의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 교회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이라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말세로 인식하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혼동하게 되며,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들과 비슷한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 이를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드려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나 회원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말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설명하기보다 우선 오해를 푸는데 시간을 먼저 써야 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첫 이미지를 좀더 올바르게 갖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전을 비롯하여 많은 출판물과 교회 건물의 로고를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회원들에게 주는 충격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언제까지 이름으로 인하여 교회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의 성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권능과 열쇠를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차례로 순교를 당하면서 신권의 권세가 이어지지 못하였고 그래서 배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권능과 열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교회와 같은 조직과 가르침을 가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된 초기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부르다가 초기(Former-day)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Latter-day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말일에 조직된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은 조직과 가르침을 갖고 마지막 날에 회복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를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이름에 있는 latter-day saints라는 말은 “말일 성도”로 번역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성도(former-day saints)에 대비가 되는 “후기 성도”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쓸데없는 오해와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latter-day의 day가 날짜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후일보다는 후기가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몇 년전 중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본부에서도 “후기”라는 표현이 교리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도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용어인 last day, latter-day에 대한 번역이 많은 곳에서 last day는 마지막 날로 바뀌었고, latter-day는 말일에서 후일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이러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후기 성도”의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각국 언어로 물문경을 번역할 때 영어 물문경을 비롯한 경전에 나오는 단어 하나 하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Lexicon*이라는 책을 주어 번역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 나온 우리 교회의 명칭인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는 항목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한 교회이며 latter-day saints가 회원으로 된 교회”라는 설명과 함께 The Church of Jesus Christ가 주된 부분이며, of Latter-day Saints는 그 주된 부분의 한 부분(a part)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latter-day saints들이 속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교회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된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후기 성도라는 말이 뒤에 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이름을 영어 원문 대로 우리말로 나열하여 번역하면 “후기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후기 성도들만의 교회로 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만인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성도 교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가 될 우리 말 번역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The History of Korea of Old-day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우리 교회 명칭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할 때, 우리말로는 고대한국사로 번역하든, 한국고대사로 번역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하든 언어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설립하시고 그 분이 주인이신 것을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한글 교회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의 탁월한 성과를 발판으로 성취하고 도약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하였던 것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시온이 크게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한국의 성도들이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분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만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모임을 감리하기 위해 7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이다. 지난 1996년 5월 특별 한국 대회 이후 9년만의 방문이 된다.

최석구 형제  
총기획 관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로, 한국 땅이 선교 지역으로 헌납된 지 50주년, 또 조셉 스미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저도 그 준비 위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

에 정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저 자신이 예능 분야에 별로 재능이 없는 형제로서, ‘문화의 밤’을 위해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매우 신선한 감동을 받습니다. 다양한 순서에 출연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상호 부조회 자매들의 열정에 동화되면서 저 자신의 목표를 수정해 보게

되고, 지도하시는 형제 자매들의 안목에 감탄하면서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헤아려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동안의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재능 없음과 무기력함을 극복하여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자신보다는 내 주위의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면서, 우리 전체의 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는 7월 30일 ‘문화의 밤’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조차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성취감과 자긍심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주님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간증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귀환 선교사 모임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귀환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각자 선교 사업을 하였던 지역에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귀환 선교사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각 선교부 회장을 중심으로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며, 27일 저녁에는 각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한글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참조)

현재 이 모임에 참가 신청을 한 귀환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수는 2,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 전국 귀환 선교사 대회

각 지역에 흩어져서 모임을 한 귀환 선교사들은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 모여 전국 귀환 선교사 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는 한국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한 모든 귀환 선교사를 포함해, 해외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와 성전 봉사자로 봉사한 귀환 선교사들도 모두 초청될 예정이다. ■



## 문화의 밤

###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분과 위원장

김용 형제



2004년 1월 속리산에서 문화의 밤에 대한 첫 준비 모임을 가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 75년 한국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은 그려졌지만 실제로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옆에서 도우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문화의 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맡게 되고, 고 장로님께서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아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시게 됨으로써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내가 과연 이 부름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고원용 장로님께서 리아호나를 통해 하신 간증이 다시 한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항상 혈령한 모자를 쓴 기분이지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매일 저녁 개인 기도를 통해 주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전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어린 시절처럼 7월 30일의 문화의 밤에 대한 설렘이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연습에 참가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에 분명히 문화의 밤은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찬 행사가 될 것입니다.

### 댄스 스포츠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박인기 형제

"원, 투, 쓰리, 차차 ..." 형제, 자매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지만, 모두 피곤한 기색은 없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



만 7월 30일 그날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해 야속하기만 한 몸을 맘껏 흔들며 뽐니다. 2005년 1월 댄스 공연단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지만 댄스 스포츠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었고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이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인 올해 주님의 종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독신 형제 자매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된 것과 보다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찾게 될 때 정말 결심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도로써 연습한다면 분명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오늘도 따로 놓고 있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뽐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그날의 공연을 위하여 댄스 공연단 화이팅!

### 뮤지컬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장효정 자매



문화의 밤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성품을 닦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아주 많았지만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로가 더욱 조급한 마음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밤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일정

모임	일시	장소
귀환 선교사 모임	2005년 7월 27~28일	각 선교 지역
전국 귀환 선교사 대회	2005년 7월 30일 오전 10시~12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문화의 밤	2005년 7월 30일 오후 6시~8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한국 지역 대회	2005년 7월 31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전국 청년 대회	2005년 8월 3일~6일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도 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그 날이 와서 우리 모두가 연습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뮤지컬 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하루 하루를 행복하게 생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회이며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밤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부채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고명숙 자매**



오래전 어린 아이였을 때 무용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배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종들과 함께 하는 한국 성도들의 잔치를 위해 부채춤을 추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던 어렸을 적 소망과 아쉬움을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시고 저에게 축복을 부여주셨습니다.

설양환 스테이크 회장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부채를 잡은 손 끝에서 주님의 영을 느껴보라고 권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부채춤을 추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상호부조회 자매가 될 청년들과 초등학교 어린이가 함께 하고 다른 와드 자매님들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땀을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복춤**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박병선 형제**



처음에는 복춤을 하면서 복이 무거운 데다가 체격이 작아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학원 수업때문에 연습에 참여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께서 우선 순위를 생각하라고 하였고 그때 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복춤 연습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복춤을 선지자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복춤을 추며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복춤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들의 모범과 신앙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지자가 계신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조성경 자매**



작년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준비 모임에 참석한 후 이 모임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뵙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같이 저 또한 사랑하는 회장님을 4월 연차 대회를 통해 뵙고, 다시 한국에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직접 듣고 다시 뵙 수 있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 저의 마음과 저의 손이 영광을 드리는 데 작은 몫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을 하실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쁨을 선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도록 준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흡한 자에게 항상 기회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대회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케스트라 지휘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채우고 우리 개인의 마음에 다가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올바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감사 드립니다. 진심으로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된 특권에 감사 드리며 교회 역사에 남을 한국 대회에서 작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합창**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우이슬 자매**



찬송가 연습을 할 때 목이 아프고 피곤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부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느

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문화의 밤이 기대됩니다. 그날에는 선지자를 직접 볼 수 있고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 태권무

###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이호현 형제



저는 네 번째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은 태권무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작년 6월부터 형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범단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무를 하면서 자신을 수련하는 만큼 선지자에게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태권무를 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명 정도되는 친구들을 뛰어넘어 송판을 격파할 때는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훌륭한 모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풍물

###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김규진 자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의 밤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직 일 년이나 남아있는 그 날을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성도들이 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이해시켜야 했고, 풍물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함께 했던 성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으로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실망감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치는 성도들을 잘 지지해 주는 어느 독신 회원 자매의 다독임, 한번도 연습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서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겸손, 그 청년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의 간중, 연습 할 때마다

계속 머리를 돌려야 하지만 먼저 끝내자고 한 적 없는 상모 청년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 어린 자녀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려는 부모님들의 모범과 열정, 어떻게 보면 연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어른들의 보폭을 잡아 보려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 이런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생각하니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떨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를 통해 한마음 한뜻의 시온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합창

###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배정숙 자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50년이 되는 올해 감사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송을 부를 때면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고 슬픔과 고통을 위로 받을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찬송가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75년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위해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그때 영적인 감동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높였던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한 주일 피곤에 지친 몸이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노래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그 노래를 통하여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또 한 주일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합창 단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느끼며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하여 나의 달란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달란트가 작지만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지역 대회 때까지 신앙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 화관무

###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이세리 자매

동계 청소년 대회에서 처음 화관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화관무 공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동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졌고 줄도 잘 안 맞고 순서도 계속 틀렸습니다. 특히 “굴신”이라는 동작은 너무 어렵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연습한 다음날이면 항상 팔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배울 수 있으려나 생각했었지만 동작을 하나하나 익혀나갔고 연습에 연습을 더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의 밤을 위해 우리의 전통 무용인 화관무를 배울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아직도 줄이 잘 안 맞고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6일에 경희대 수원 캠퍼스 농구장에 자리가 모자라서 바닥에 앉을 만큼 많은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 문화의 밤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 한국 지역 대회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영감 어린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대회에, 각 스테이크, 지방부의 모든 회원들이 저활동 회원들과 구도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회가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회원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위성 방송으로 시청할 예정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직접 선지자를 만나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대회는 해외에 있는 한국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위성으로 중계되는 지역 대회의 광경을 시청할 수 있다.

### 한국 지역 대회 준비 위원(진행 담당)

조병갑 형제



많은 신부들이 꿈에 그리던 신랑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 헌법 50주년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와 한국 지역 대회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면 그런 신랑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소망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아끼는 절실함, 그리고 신랑에 대한 간절함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오랜시간 준비해온, 50주년을 축하하는 대회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모두 꿈에 그리던 신랑을 맞이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전국 청년 대회

전국 청년 대회는 한국 교회 헌법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임이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사명감과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이 행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한국 청년 대회 준비 위원장

조만구 형제



교회는 188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회복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은 교회를 대신해서 일부 성도들이 영구 이민 기금 회사에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의 반을 탕감해 줄 것을 발표했으며, 가족과 양떼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당부하며, 상호부조회의 창고에 쌓아 놓은 밀을 가난한 자에게 이차없이 빌려 주도록 권고했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연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영적, 세상적 준비를 하여 한국 교회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 청년 대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거칠고 힘든 서부 여행 중에도 “춤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 어려움을 극복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며 그간 한국에서 교회를 뿌리 내리도록 온갖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한 지도자들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8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기억에 남을 한국 청년 대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청년 독신들의 참여를 바라며, 그간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준비하여온 준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

#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거의 무엇이든지, 거의 누구에게든지, 처음 시작은 “미약”하기 마련이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개종도 아주 “미약”하고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의 최은자 자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막연하게 ‘교회에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던 여고 졸업생이 지금은 이십 명이 넘는 회원 가족의 첫 개종자가 되어 있다.

지난 4월 3일에는 그토록 정성을 들였으면서도 거의 꿈도 꾸지 못했던 친정 아버지의 침례식이 있었다. 이미 거대한 회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문일까? 그는 친정 아버지의 침례를 지켜보면서 진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 방울 하나하나가 간증이었다. 그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두들 알고 있었다.

1980년, 고등 학교를 졸업한 직후 최 자매는 친구인 배정희 자매로부터 교회에 처음 초대를 받았다. 광주 스테이크의 학동 와드였다. 지금의 총장 와드가 된 곳이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작은 전세 건물에 처음 참석했다. 회원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1980년 3월 22일, 드디어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최 자매는 혼자 있는 듯 없는 듯 신앙 생활을 하지는 못할 개종자였던 모양이다. ‘그 무엇보다도 감미로운 열매’를 혼자 취하기가 안타까워, 바로 당시 고등 학교 2학년 생이던 동생 최은숙 자매와 초등학교 5학년 생이던 최양국 형제, 그리고 외가와 친가의 사촌들 몇 명을 교회로 데려갔다.

“처음엔 가족을 중요시 하는 교리, 특히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모토가 맘에 들었어요. 또 친절한 회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마냥 좋았죠.” 최 자매가 지극 정성으로 교회에 다니게 해준 힘이었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가운데 신앙과 복음 지식을 키울 수 있었다.

그의 가족에게 특별한 신앙의 힘이 있는 것일까? 최 자매의 간증을 더욱 크게 해준 사례를 소개한다. “하루는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막내 동생 양국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참석하고 있던 동생 은숙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회 지도자이셨던 임중하 형제님과 박병규 형제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막내 동생을 만나고 가셨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다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동생이 교회에 잘 나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양국이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개종시키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 선교사들이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개종이 힘들겠다’고 고개를 젓게 했던 오빠 최양선 형제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가족은 친정 아버지를 제외하고 전원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제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오는 데는 최 자매 외에도 가족 모두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요지 부동하던 아버지 최규진 형제가 사위들과 작은 아들이 증인이 되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아들의 손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열두 명의 손자녀들이 축하 찬송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

“아버지가 침례 받으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할 일을 다 이룬 것 같은 뿌듯함이 최 자매의 얼굴에 가득하다.

\* 최은자 자매는 남편인 박경수 형제 및 다섯 자녀 재우, 재훈, 상미, 윤지, 정선과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 참석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오빠 최양선 형제 가족 및 여동생 최은숙 자매 가족은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에 참석하고 있고, 남동생 최양국 형제의 가족은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에 참석하고 있다. ■



2005년 4월 3일 아버지 최규진 형제의 침례식날 모두 함께 모인 가족들. 맨 뒷줄 가운데가 최은자 자매이다.

## 송평중 형제/양계영 자매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 시작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의 송평중 형제와 부인인 양계영 자매가 서희철 회장의 후임으로 한국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아 봉사를 시작했다. 송평중 회장은 서희철 전 회장 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겸손하게 부름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부인인 양계영 자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름이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지만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겠다고

며 각오를 밝혔다.

송평중 회장(58세)은 선교부 회장에 부름 받기 전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소속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 전에는 선교부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과 보좌 그리고 감독으로 봉사한 바 있다. 오랜 동안 금융계의 고위직에서 근무하다 은퇴했다. 전라남도에서 부친 송기용 옹과 모친 이명순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송 회장은 양계영 자매와 결혼하여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상호부조회 교사로 봉사했던 양계영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과 보좌, 복음 교리반 교사와 세미나리 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전라북도에서 부친 양해욱 옹과 모친 오영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

### 아름다운 사람들

## 손끝에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조동희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 둘씩 마술을 배웠는데 어느새 직업이 되어버렸네요.” 조동희 형제는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의 회원입니다. 그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994년, 청주 스테이크에서 칠편을 받은 조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 벌써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마술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배울 곳도 많지 않고, 수강료 역시 너무 비싸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배웠습니다. 조 형제는 마술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곧장 교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교회 회원들은 늘 따뜻한 박수로 그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술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배워 사회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권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도 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조동희 형제는 지금도 초기 무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회와 초대회 대회 등 크고 작은 교회의 모임들에서 그를 찾아 주었고, 많은 배려와 격려로 인해 큰 힘을 얻은 그는 프로 마술사와 전문 사회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본 뒤 ‘재미있었어요.’라고 인사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조동희 형제는 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호호하며 순수하고 따스한 영혼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해 합니다. 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마술이 아닌,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 형제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맛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복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

공연을 본 뒤 ‘재미있었어요.’라고 인사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조동희 형제는 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호호하며 순수하고 따스한 영혼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해 합니다. 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마술이 아닌,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 형제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맛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복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

# 한국 관리 본부 합창단

## 정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문화 예술제에서 동상 수상

**지**난 5월 24일, 한국의 관리 본부 직원들이 노동부가 KBS와 공동으로 주최한 근로자 문화 예술제 음악 분야에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합창으로 불러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 예술제는 매년 한 차례씩 한국의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갖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서 금년이 26회째가 되었다. 전국에서 수백 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진출한 17개 팀에서 수상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한 순간이었다.

총관리 역원들이나 특별한 손님들과 영적인 모임을 가질 때 특별 찬송을 부르기 위해 약 5년 전에 합창을 시작한 것이 한국 관리 본부 직원 합창단의 모태가 된다. 그러던 중 금년인 2005년에 들어서 합창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자는 취지에 따라 공식적으로 합창단을 결성하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에는 청주의 흥복 양로원에서, 4월 28일에는 연세 드신 후기 성도들의 단체인 상록회 모임에서 그리고 5월 21일에는 BYU Young Ambassadors와 함께 국내 최대 고아원

인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합창단의 명칭은 “셈여림 합창단”. 음악 악보의 셈여림 표를 잘 맞출 때 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이루어지듯이, 모두가 조화롭게 일하고 봉사하자는 의미로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다.

연습은 평상시에는 매주 화요일 퇴근 후 1시간 정도, 공연일이 가까워오면 매일 점심 시간에 20~30분 정도 해온 것이 전부. 교회 지도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금요일 아침 전체 개회를 할 때 10분 정도 외에는 모두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해 온 것이 특징이다. 공연을 갈 때 소요되는 기부금 및 기타 모든 비용은 합창단원인 관리 본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봉사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관리 본부 직원들은 말한다.

한국 관리 본부의 대표인 최윤희 형제는 “이렇게 KBS의 근로자 문화 예술제에서 입상한 것이 앞으로의 봉사 활동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관리 본부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소외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관리 본부의 “셈여림 합창단”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음악을 통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옆: 홀트 복지 아동 복지회 장애우들과 함께 한 셈여림 합창 단원들과 BYU 학생들.

아래: KBS 근로자 문화 예술제 본선에 참가하여 공연 중인 관리 본부 직원들.



#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참조

- BYU Young Ambassadors의 뮤지컬 공연  
서울공연(2005년 5월 21일)  
전주 공연(2005년 5월 18일)
- 광주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2005년 5월 22일)  
나의 개종에서 그 후 1년(김명례 자매)
- 대구 스테이크  
천연 염색 연구가 김정화 자매(2005년 6월 11일)
- 부산 스테이크  
부산 종교 교육원 바운티풀 축제(2005년 6월 18일)  
기쁘게 장로 특별 노변의 모임(부산 스테이크)  
(2005년 6월 19일)  
정소영 자매 고교 과학 탐구 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산 스테이크)
- 부산 서 지방부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 행사(2005년 5월 14일)
-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체육 대회(2005년 5월 5일)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2005년 5월 22일)
- 서울 남 스테이크  
부부 동반 역원 세미나(2005년 5월 20~21일)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 송별 노변의 밤  
(2005년 6월 12일)  
이도환 성전 회장 초청 연례 성전 특별 세미나  
(2005년 6월 19일)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우리 시대의 기적-특별한 선교사 활동(동대문와드)  
(2005년 6월 12일)
- 전주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 “골든벨”(2005년 6월 25일)
- 청주 스테이크  
중부 종교 교육원-봄의 축제(2005년 5월 21일)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 행사와 합동 세미나  
(2005년 5월 28일)  
사랑의 흥복 양로원 방문(2005년 6월 6일)
- 해외 지역단신  
프로보 11 스테이크 한인 지부의 비상 소집일  
(2005년 4월 9일)  
BYU-Idaho 한국 학생회(2005년 5월 7일)

## 바로 잡습니다

지난 6월호 지역 소식 13쪽 “고원용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기사에서 고원용 장로가 교회에 처음 들어온 해를 1972년에서 1962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고원용 장로의 부친의 성명을 고장수 형제에서 고창수 형제로 바로잡습니다.

15쪽 광주 스테이크 “부활절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연합 음악 예배”에서 풍향 와드 오석중 형제를 농성 와드 오석중 형제로 바로 잡습니다.

## 직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지부 회장: 박기호(전임: 정병렬)

###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 회장: 강신용(전임: 한정윤)

1보좌: 안종원(전임: 강신용)

2보좌: 장재천(전임: 장재천)

###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감독: 김원주(전임: 박종배)

###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지부 회장: 이승주(전임: 김희용)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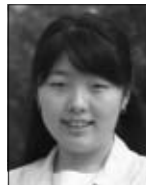
**강지영**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방미라**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대전 선교부



**권정미**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배성민**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현미**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부산 선교부



**오두리나**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